

광주서 펼쳐지는 영화적 연대의 장

‘모 베테르 시네마, 모 베테르 라이프’
광주독립영화관 7주년 기획전
18~19일 광주서 제작된 작품 9편
디트릭스 홈페이지서 예매 진행
“문화감수성 다양화 기여할 것”

광주에서 문화 복지 실현과 시네필들의 정서적 거점으로 역할을 해 온 영화주체들이 연대해 뜻깊은 기획을 선보인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오는 18~19일 이틀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개관 7주년 기획전 ‘모 베테르 시네마, 모 베테르 라이프’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광주극장, 광주여성영화제, 광주독립영화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리며 광주에서 제작된 작품들로 구성된 지역 영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개관 7주년을 맞은 광주독립영화관은 그간 광주 시민들의 문화다양성 확장 영화인들의 물리·정서적 거점공간으로써 기여해 왔다. 기획전은 그동안의 성과를 축하하고 시민들과 영화인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광주독립영화관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전국 유일의 단관 극장인 광주극장이 개관 90주년을 맞이해 광주 영화계에서도 중요한 해로 꼽힌다. 1935년부터 광주의 역사를 함께해 오며 시민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극장은 존재만으로 빛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의 문화감수성을 다룬 작품도 이번 기획전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적박한 지역환경에서도 10년 이상 꾸준히 영화제를 개최해 온 광주여성영화제와 광주독립영화제의 주요 상영작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기획전 첫날인 18일에는 ‘광주여성영



화제 권 단편공모 작품상 수상작’ 5편이 한 섹션으로 구성돼 선보인다. 이날 오후 5시 허지는, 이경호 감독이 공동연출한 ‘행인’을 시작으로, 김은희 감독의 ‘침입자는 자라서’, 조한나 감독의 ‘퀸의 뜨개질’이 스크린에 걸린다. 이어 오후 7시 김

도연 감독의 ‘술래’와 심이안 감독의 ‘뺨고’가 상영될 예정이다.

이들 작품 상영 후에는 김재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관객과의 대화(GV)를 진행한다. ‘술래’의 김도연 감독, ‘뺨고’의 심이안 감독과 조아영 배우가 참석해 작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관객과 나눌 예정이다. 김도연 감독은 제11회 광주여성영화제에서 권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심이안 감독 역시 제15회 광주여성영화제에서 권 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일 행사는 ‘광주독립영화제 중요작품’으로 송원재 감독의 ‘내 이름’, 이경호 감독의 ‘혼자’, 김아솔 감독의 ‘원샷’이 상영된다. 또 ‘광주극장 90주년 기념작’ 오윤주, 유순안 감독이 연출한 ‘광주극장’이 스크린을 채운다.

송원재 감독의 ‘내 이름’은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은 송 감독의 장편 신작으로,

지난해 광주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바 있다. 상영 후에는 김태진 광주청년센터 센터장의 진행으로 관객과의 대화(GV)를 진행한다.

광주독립영화관 개관 7주년 기획전 ‘모 베테르 시네마, 모 베테르 라이프’는 유료상영으로 열린다. 균일가 5000원이며, 예매는 디트릭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영화관 목록에서 광주독립영화관을 들어가 하면 된다. 이번 기획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상훈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이사장은 “열악한 인프라에도 시민들의 문화감수성을 다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의 중요 영화주체들과 함께 이번 개관 기획전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펜으로 전하는 광주의 풍경... ‘ACC에 반한 스케치’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展
20일까지 대나무 정원서 개최
작품 260여점·아트상품 70여종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과 협력해 ‘ACC에 반한 스케치’ 전시를 오는 20일까지 문화정보원 대나무 정원서 개최한다.

9일 ACC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지난해부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과의 협력 전시다. 지난해 전시에는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작가만 참여했다면 올해 전시에는 광주·전남의 예도 서울, 인천, 고양, 부산,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91명이 참여한다.

올해 열리는 전시 주제는 ‘어반드로잉&아트상품展’로, ACC와 도시 이야기를 담은 260여점의 작품과 그 그림을 소재로 개발한 아트상품 70여종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전시와 연계한 ‘어반스케치 워크숍’도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제회의실과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에는 ‘어반스케처스’ 전국 회원을 비롯해 ACC 기자단 및 서포터즈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작가 ‘리모(김현길)’가 ‘길 위의 예술, 어반스케치’라는 주제로 강연과 함께 시연을 펼친다.

한편 ‘어반스케처스’는 자신이 살고 있거나 여행하는 도시와 마을을 현장에서 그리는 세계적인 단체로 전 세계 70개국 450개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에 결성된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에는 현재 19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광주의 옛 거리와 건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그려낸다.

서동환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대표는 “‘어반스케치&드로잉’은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매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ACC와의 협력으로 광주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회원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싱어송라이터 닐로가 선사하는 독보적 감성 ‘들려줄게’

내달 9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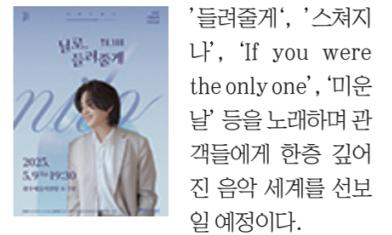
광주예술의전당이 올해 기획공연 포커스 두 번째 무대로 싱어송라이터 닐로를 초청해 선보인다.

9일 광주예술의전당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오후 7시30분 싱어송라이터 닐로 단독 콘서트 ‘들려줄게’를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닐로는 지난 2015년 첫 싱글 ‘바보’로 데뷔했고 대표곡 ‘지나오다’로 온라인 음원 사이트 1위, 연간차트 4위를 기록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은 뮤지션이다. 그간 섬세한 감성을 담은 자작곡을 통해 탄탄한 음원 파워와 독보적인 감성 표현력을 입증해 왔다는 평가다.

또한 ‘KBS 불후의 명곡’, ‘MBC 복면가왕’ 등 방송에서 압도적인 라이브 실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선보여 대중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닐로의 대표곡 ‘지나오다’를 비롯해 ‘벗’, ‘넋두리’, ‘너에게’,



‘들려줄게’, ‘스쳐지나’, ‘If you were the only one’, ‘미운 날’ 등을 노래하며 관객에게 한층 깊이진 음악 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연진은 보컬 닐로를 중심으로 메인 건반 신성진, 세션 건반 원혜영, 드럼 황휘규, 베이스 이용규, 기타 장현호 등 실력과 뮤지션들이 참여해 풍성한 사운드와 현장감을 선사한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며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1588-7890)에서 하면 된다. 한편 기획공연 포커스(Focus)는 예술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적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세 번째 무대는 독보적 음색을 지닌 보컬리스트 우디의 무대로 오는 6월20일 공연된다.

박찬 기자

윤상원기념관서 기리는 민주 정신... ‘오월 보자기 아트 수업’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행사
17~18일... 성인 30명 대상 진행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광주 광산구 윤상원기념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된다.

9일 윤상원기념관에 따르면 오는 17~18일 이틀간 ‘오월 보자기 아트 수업’을 진행한다.

이 수업은 윤상원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소년은 언제나 우리 곁에’ 기획전시를 관람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모티브가 된



도서 ‘소년이 온다’를 전통 보자기를 활용해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김보라한국보자기아트협회 부회장이 직접 강의하며, 수업은 17~18일 오전 10시40분부터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윤상원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신청 접수는 QR코드 또는 인스타그램(sangwonmuseum)을 통해 받는다.

윤상원기념관 관계자는 “‘오월 보자기 아트 수업’은 단순히 책을 포장하는 것을 넘어 전통 보자기를 활용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체험이다”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청소년들을 기억하기 위한 뜻깊은 기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전시 ‘소년은 언제나 우리 곁에’는 다음달 31일까지 윤상원기념관에서 계속될 예정으로 오월의 영령을 기리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 기자



전통의 아름다움... ‘가야금과 새봄 날다’

12일 오후 2시 동구 미로센터
사계동행 무대로 전통의 울림

곡우절을 앞두고 사계동행으로 펼쳐지는 특별한 국악 공연이 마련된다.

(사)고제(古制)가야금병창보존회가 주최하고 광주 동구가 후원하는 제8회 정기공연 ‘가야금과 새봄 날다’ 무대가 오는 12일 오후 2시 동구 미로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사)고제(古制)가야금병창보존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진수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전통 가야금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인 성진희 이사장이 기획

한 이번 무대는 25현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김계옥 교수를 초청해 ‘사계동행의 봄 여행’이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곡우절(穀雨節)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새싹처럼 돋아나는 전통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사)고제(古制)가야금병창보존회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세대를 아우르는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문화 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며 “전통문화와 교육, 세대 간 소통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모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찬 기자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